

# 제주도의 언어지도 (1)

- 매미류 -

오 창 명\*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본문
  - 1) 조사지점도
  - 2) 매미의 언어지도
  - 3) 털매미의 언어지도
  - 4) 말매미의 언어지도
  - 5) 유지매미의 언어지도
  - 6) 애매미의 언어지도
  - 7) 매미류의 언어지도
3. 마무리

##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제주도 방언을 언어지리학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작업의 하나로, 우선 매미류에 대한 언어지도를 작성하여 지역간의 방언차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쓴 것이다.

국어를 지역 방언의 총체라고 한다면, 제주도방언은 小倉進平(1940, 1944)의 것에 따른 여섯 개의 대방언권(평안방언·함경방언·경기방언·전라방언·경상방언·제주방언 등)<sup>1)</sup> 중 하나에 속한다. 그런데 다른 대방언권과는 달리 제주도방언

\* 제주대학교 강사

- 1) 오늘날은 용어를 조금씩 바꾸어 쓰기도 한다. 평안방언은 평안도방언 또는 서북방언, 함경방언은 함경도방언 또는 동북방언, 경기방언은 중부방언, 전라방언은 전라도방언 또는 서남방언, 경상방언은 경상도방언 또는 동남방언, 제주방언은 제주도방언 등이 그것이다.

을 중방언권 또는 소방언권으로 나누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석주명(1947, 1971)에서는 '북부어'와 '남부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제주도방언을 2개의 중방언권으로 나누어 인식한 듯하다. 강정희(1980, 1988)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는 몇 개의 어휘적 차이에 의해서 나눈 것에 불과해서 용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북부어와 남부어라는 용어를 쓸 때, 지금의 제주시를 포함하는 북제주군 지역과 서귀포시를 포함하는 남제주군 지역의 언어를 일컫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성낙수(1992)는 현평효(1962)에서 69개의 어휘를 추출하여 방언지도를 그려본 결과, "남·북 간의 차이보다 동·서 간의 차이가 월등히 높다."고 지적하였고, 이때의 동에는 조천읍,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등이 속하고, 서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등이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성낙수의 견해는 정승철(1995:13)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여기서 우리는 대방언권 중 하나인 제주도방언을 다시 중방언권 또는 소방언권으로 나눌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방언권을 나눌 때는 음운적인 면과 문법적인 면, 그리고 어휘적인 면을 고려하여 나누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음운적인 면과 문법적인 면에서 제주도방언의 지역차는 거의 없는 듯하다. 다만 어휘적인 면에서의 지역차는 분명히 나타난다. 다만 그것이 제주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아니면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등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북부지역과 남부지역,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경계를 나눌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눌 수 있다면 그 경계가 되는 지점, 곧 등어선 혹은 등어선속, 전이지점 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100여 개의 기초 어휘를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방언지도를 작성해 본 것이 이 글이다.

## 2. 본 론

'매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방언지도에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기존에 조사 보고된 자료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석주명(1947:74)에서는 표준어 '매미'에 대응하는 제주방언으로 "재=젤=재리=재열"이 등재되고, 종류는 "고치젤=고치젤=고삭젤=고시약재=그셋젤=극삭재

열 = 풋재열(작은매미), 왕재열 = 왕젤 = 왕젤(큰매미)” 등 2개가 등재되었다.<sup>3)</sup> 그러나 같은 책의 ‘제2편 고찰’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매미의 濟州語 : 재, 재리, 재열, 젤 등의 여러 말이 있는데, 分明히 中國語의 ‘젠’에서 유래하였을 것이다. ‘젠’이 젤→재열→재리→재로 변화하였을 것이다.”(153쪽)<sup>4)</sup>

“‘고치젤’과 ‘왕젤’ : ‘고치’는 ‘고추’의 濟州語인데, 여기서는 ‘작은’의 뜻이요, ‘왕’은 ‘큰’의 뜻이다.”(153쪽)

석주명(1968:41)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쓰르라미 : 濟州島에 가장 많은 매미이고 異稱도 많다. 卽 고삭젤, 고시약재, 그셋젤, 극삭재열, 고치젤, 팔재열 등. 이 매미의 鳴聲은 ‘오노오고오시’라고 한다고. 젤 재열 등은 매미의 뜻이고, 고삭, 고시약, 그셋, 극삭 등은 鳴聲에서 由來하고 고치는 고추로 赤色을 意味하고 팔은 小豆의 뜻으로 小形을 意味한다.……. 매미의 種類 : 加藤正世氏(1932년)에 依하면 濟州島에는 다음의 4種이 産하고 모두 南韓과 共通種이다. *Piatypleura kaempferi* 쌍쌍매미, *Graptopsaltria colorato* 유지매미, *Tanna japonensis* 쓰르라미, *Meimuna opalifera* 애매미”

석주명(1971)의 ‘濟州島의 動物名’에서는 “고삭젤 = 고시약재 = 그셋젤 = 극삭재열 = 고치젤 = 팔 재열(애매미), 재 = 젤 = 재리 = 자리 = 재열 = 재열(매미), 왕재열 = 왕젤(큰매미)’이 등재되어 있다.”

석주명(1971:27)의 ‘濟州島方言隨筆補遺’에서는 “매미:매미의 제주어는 실로 많은데 자리, 재, 재리, 재열, 재열, 젤 등 6개어이다. 이 말의 어원은 중국어의 ‘젠’일 것인데, ㄴ이 ㄹ로 변한데 재미가 있다.”고 하였다.

박용후(1961, 1988)에서는 ‘매미’에 대응하는 방언으로 ‘재 = 재리 = 재열 = 젤’ 등을 들었고, 종류로는 ‘고삭젤 = 고시약재 = 그셋젤 = 극삭재열 = 고치젤 = 풋재열’(쓰르라미), ‘왕재열 = 왕젤’(큰 매미) 등을 실었다.

3) ‘젤’로 쓰기도 하고, ‘젤’로 쓰기도 했으나, ‘젤’과 ‘젤’의 음운론적 차이를 인식해서 쓴 것 같지는 않다.

4) 석주명의 글을 종합해보면, ‘풋재열’과 ‘극삭재열’을 같은 것으로 보고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풋재열’은 표준어 ‘털매미’에 대응하는 것이고, ‘극삭재열’은 표준어 ‘애매미’에 대응하는 것이다.

현평효(1962)에서는 '매미'에 대응하는 방언으로 '재열(노형, 어도, 조수, 인성, 화순, 하원, 서흥), 자리(표선, 수산), 짤:(조천), 재:(태흥, 세화, 가시)'를 등재하였고, 종류로는 '아주 작은 매미의 한 가지'로 '뫼재열(조수, 서흥), 족재열(인성, 조수), 뫼자리(수산), 뫼재일(서흥), 뫼짤:(김녕), 뫼재(가시)', '말매미'에 대응하는 방언으로 '왕재열(인성, 노형, 조수), 왕자리(수산), 왕재:(서흥, 가시), 왕짤:(김녕), 왕잘:(김녕)' 등을 등재하였다.

강영봉(1993)에서는 '매미'의 방언형으로 '재열=자리=짤=재'를 들었고, 종류로는 '왕재열=왕자리=왕재=왕잘'과 '뫼재열=뫼자리=뫼짤=뫼재=족재열'을 들었다.

이상에서 석주명의 견해를 종합하면, 제주도에는 4종류의 매미가 있는데, 각각에 대한 명칭은 2종류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국어학자인 박용후, 현평효, 강영봉 등에서도 2종류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과거 문헌 기록을 종합하여 볼 때 제주도에 서식하는 매미는 털매미(쌍쌍매미), 말매미(검은매미), 유지매미(기름매미), 참매미(매미), 애매미, 쓰름매미(쓰르라미), 풀매미 등 7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국의 매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이영준 님은 '쓰름매미'를 제외한 6종의 서식을 확인하고 표본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6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5)</sup> 그리고 그 방언형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4종류가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방언형으로 나타나는 4종류는 비교적 민가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방언형으로 나타나지 않는 2~3종류는 민가가 아닌 산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민가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방언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조상하였다.

## 1) 조사지점

'매미'의 제주방언 지도를 그리기 위해 먼저 조사지점을 선정해야 하는데, 시·읍·면에서 두세 군대를 선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선정 기준은 해안가보다는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래서 선정한 곳이 제주시 오등동, 조천읍 함덕리와 북촌리, 선흘리, 구좌읍 한동리와 세화리, 덕천리, 성산읍 수산리와 난산리,

5) <한국의 매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이영준 님과도 이메일 대화를 통해 확인한 것임.

표선면 성읍리와 가시리, 남원읍 수망리와 의귀리, 하례리, 서귀포시 하효동과 호근동, 색달동, 안덕면 덕수리와 감산리, 대정읍 보성리와 신평리, 고산리, 한경면 조수리와 저지리, 한림읍 금악리와 대림리, 애월읍 애월리와 장전리, 구엄리, 남읍리 등 30여 개 지점이다. (<제주방언의 언어지도:매미> 참고.) 위 조사지점도를 중심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했는데, 주로 마을의 노인당 또는 경로당, 노인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했다. 그러므로 5~60년 전의 조사와 달라질 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은 노인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현재 확인되는 방언형은 기존의 방언형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 2) 매미의 언어지도



'매미'에 대하여 조사해본 결과, 제주방언형으로는 '재열, 재월, 자열, 쟈, 잘, 재, 자, 자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개 서귀포시 대부분과 제주시,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등에서는 '재열'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가끔 변이형으로 보이는 '재월, 자열'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열'이라는 2음절 발음이 줄어든 '재'와 변이형인 '자리'가 하효동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하효동은 서귀포시 다른 지역과 같은 지역으로 묶기보다는 남원읍 지역과 동일형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제주군 조천읍 조천리와 함덕리 등 해안마을은 '쟈, 잘' 등 1음절로 나타나나, 선흘리와 대흘리 등 중산간 마을은 '재열'과 '쟈' 등 2음절과 1음절이 함께 나타났다. 구좌읍 한동리와 세화리 등의 해안마을에서는 '재'와 '자' 등 1음절로 나타나나, 덕천리 등 중산간마을은 2음절인 '재열'이 절대적이었다. 성산읍은 수산리와 난산리 등에서 2음절인 '자리'가 절대적으로 우세하였고, 표선면에서는 성읍리와 가시리에서 '자리'가 우세했으나 가시리에서는 1음절인 '재'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원읍에서는 수망리와 의귀리, 하례리 등에서 '재'가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의귀리에서는 '재열', 하례리에서는 '자리'도 확인할 수 있었다.(<제주방언의 언어지도:매미> 참고.)




### 3) 털매미의 언어지도

표준어 ‘털매미’에 대응하는 제주방언형은 ‘뫓재열, 뫓재’, ‘족재열’, ‘뫓자리’ 등으로 나타난다. ‘뫓’은 ‘팥’(小豆)의 제주방언이고, ‘족’은 ‘작다’의 제주방언 ‘족다’의 어간형으로, ‘뫓’과 같이 자그마한 매미라는 데서 ‘뫓재열, 뫓재’라 하였고, 다른 매미들보다 유난히 작은 매미라는 데서 ‘족재열’이라고 하였다. 그러고 보니 매미의 크기를 고려하여 붙인 이름임을 알 수 있다.

‘털매미’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쌍쌍매미  <동> 매미과에 딸린 벌레. 몸 길이는 날개 끝까지 35mm쯤이고, 몸빛은 어두운 누른 풀빛에 풀빛 아롱무늬가 있다. 7~9월에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무 숲속에서 ‘쌍쌍쌍’ 하고 우는데, 우리나라·일본·중국 등지에 산다.  쌍쌍이. 털매미. 『한글우리말큰사전』(1991, 한글학회)

털매미  <동> 매미과의 곤충. 몸의 길이는 2~2.5cm이며, 머리와 앞가슴은 녹색을 띤 누런 갈색, 배의 등 쪽은 어두운 갈색이다. 앞날개의 3분의 2는 구름무늬가 있고 뒷날개는 어두운 갈색이다. 한국, 말레이시아, 일본, 쿠릴열도 등지에 분포한다. 녹색쌍쌍매미. (Platypleura kaempferi) 『표준국어대사전』(1999, 두산동아)

털매미(Platypleura kaempferi (FABRICIUS, 1794))

털매미가 속한 털매미속(屬)에는 전세계에 약 90종이 기록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동해안에서 아라비아, 인디아, 말레이 반도, 호주 및 아시아 대륙 북부에 걸친 광범위한 분포를 가지고 있다. 아열대인 류큐 지방을 포함한 일본에는 털매미속에 속하는 매미가 5종이나 되지만, 한국에는 털매미 한 종만 기록되어 있다. DOI(1917)에 의해 학명 없이 ニイニゼミ로 기록된 것이 털매미의 한국 최초 기록이다.

형태 : 몸길이는 암수 모두 24mm 내외, 날개 끝까지의 길이는 38mm 내외로 작은 편에 속한다. 앞날개에는 검정 및 회색 계통의 구름 형상 무늬가 있고, 뒷날개의 투명한 바깥 가장자리 외에는 검정색이다. 가운데가슴 등 윗면은 검은 바탕 가운데 W자 모양의 녹색 또는 주황색 무늬가 있다. 앞가슴 등은 녹색 또는 주황색의 무늬로 거의 채워져 있다. 배의 아랫면은 검정 바탕에 흰 가루로 덮여 있다. 몸 전체에 짧은 털이 덮여 있다. 털매미의 탈피각은 겹눈을 제외한 온몸이 진흙으로 덮여 있다.

생태 및 울음소리 : 『한국의 매미』(이영준, 1995) 및 “A List of Cicadidae(Hornoptera) in Korea”(이영준, 1999) 참조.

MORI(1931)가 울음소리를 흉내내어 ‘썩썩매암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최초의 한국명이다. 조복성(1946)은 몸 전체에 짧은 털이 덮여 있다고 해서 ‘털매미’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이 현재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분포 : 털매미의 최초 기록지는 일본이며,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지에 분포한다. <이영준, 한국의 매미 홈페이지>

석주명(1947)과 석주명(1971)에서는 ‘뫼재열’을 표준어 ‘조료(蛸蟻)’ 또는 ‘애매미’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잘못이다. 그리고 박용후(1961, 1988)에서도 ‘뫼재열’을 표준어 ‘쓰르라미’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도 잘못이다.

‘털매미’의 제주방언형을 조사해본 결과, 서귀포시, 제주시,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안덕면 등에서는 ‘족재열’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저지리와 대림리, 장전리, 오등동 등에서 ‘뫼재열’도 확인할 수 있다. 조천읍 선홀리와 구좌읍 덕천리에서는 ‘뫼재열’이 절대적이나, 해안마을인 함덕리에서는 ‘뫼재’, 한동리와 세화리에서는 ‘뫼재’로 실현된다. 성산읍과 표선면, 남원읍에서는 ‘뫼자리’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나, 수망리와 의귀리에서는 주로 ‘뫼재’로 실현되고, 하례리에서는 ‘뫼자리’와 ‘뫼재’가 실현되는 것이 특이하다. 서귀포시 하효동에서도 ‘뫼재’가 우세하다. <제주방언의 언어지도: 털매미> 참고.)

#### 4) 말매미의 언어지도

표준어 ‘말매미’에 대응하는 제주방언형은 ‘왕재열, 왕재·왕자, 왕자리’ 등으로 실현된다. ‘왕-’은 동식물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앞에 붙어 ‘보다 큰 종류’ 또는 ‘매우 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쓰이는 말이다. 그러고 보니 다른 매미보다 몸 형태가 크다는 데서 ‘왕재열, 왕자리, 왕재·왕자’ 등으로 부른 것을 알 수 있다. ‘말매미’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말매미(말매미) <동>매미과의 곤충. 몸의 길이는 4.5cm, 날개의 길이는 6.5cm 정도로 우리나라 매미 가운데 가장 크다. 검은색에 날개는 투명하고 다리와 배에 황금색의 잔털이 나 있다. 아침부터 아주 크고 강한 소리로 운다. 한국, 일본,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



마조(檮蝸) 선충(蟬蟲) 책선(蚱蟬). (*Cryptotympana dubia*) 『표준국어대사전』(1999, 두산동아)

말매미(*Cryptotympana atrata* (FABRICIUS, 1775))

말매미속에는 인도, 말레이반도, 중국 남부 등에 걸쳐 많은 종이 알려져 있으며, 말매미나 일본의 *C. facialis*와 같이 극동 아시아로 북상한 종들도 있다. 전세계에 걸쳐 50종이 보고되어 있고, 한국에는 말매미 외에 왕말매미(*C. aquila* (WALKER, 1850))도 기록된 바 있지만 왕말매미는 한국에 서식하지 않는 종이다. KATO(1925a)가 *Cryptotympana coreanus*를 신종 기재한 것이 말매미의 한국 최초 기록이며, '말매암이'라는 한국명은 MORI(1931)에 의해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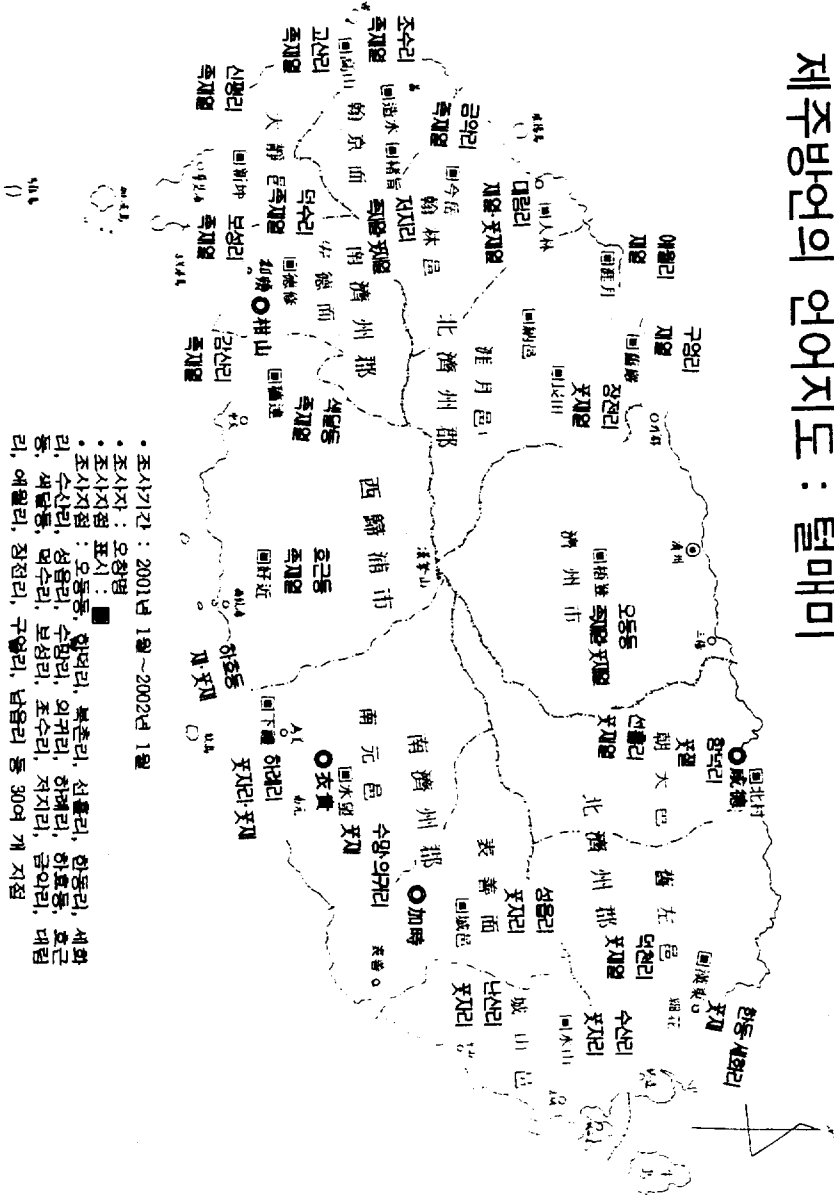
형태 : 몸길이가 수컷은 43mm 내외, 암컷은 45mm 내외로 한국산 매미 중 가장 큰 체구를 자랑한다. 날개 끝까지의 길이는 암수 공히 65mm 내외이다. 윗면은 광택 나는 검정색이며 신선한 개체는 금빛 가루로 덮여 있다. 아랫면은 검정 바탕으로, 배와 다리에 옅은 지색 무늬가 있다. 겹눈을 포함한 머리의 폭이 넓어 가운데 가슴 등의 폭과 거의 같다. 앞다리 퇴절에는 가시와 같은 돌기가 잘 발달되어 있어, 사람이 잡아서 손에 쥐고 있게 되면 앞다리를 조이면서 돌기로 사람의 손을 찌르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생태 및 울음소리 : 『한국의 매미』(이영준, 1995) 및 "A List of Cicadidae(Homoptera) in Korea"(이영준, 1999) 참조.

분포 : 말매미의 최초 기록지는 중국이며,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대만, 인도차이나 북부 등지에 분포한다. <이영준, 한국의 매미 홈페이지>

표준어 '말매미'에 대응하는 제주방언형은 서귀포시, 안덕면, 대정읍, 한경면, 한림읍, 애월읍, 제주시에서는 '왕재열'이 절대적이고, 서귀포시 하효동에서는 '왕자리', 조천읍 선흘리와 구좌읍 덕천리에서도 '왕재열'로 실현되는 것이 특이하다. 조천읍 함덕리와 북촌리에서는 '왕젤' 또는 '왕질'로, 구좌읍 한동리와 세화리에서는 '왕재' 또는 '왕자'로 실현된다. 성산읍 수산리와 난산리, 표선면 성읍리, 남원읍 하례리 등에서는 '왕자리'가 우세하고, 표선면 가시리와 남원읍 하례리에서는 '왕재'도 실현된다. 그러나 남원읍 수망리와 의귀리에서는 '왕재'가 우세하게 실현된다.(<제주방언의 언어지도:말매미> 참고.)


# 제주방언의 언어지도 : 텔매미





## 5) 유지매미의 언어지도

표준어 '유지매미'의 제주방언형은 '매옹재열·매옹이재열, 맨중재열·멩중재열, 심방재열, 사랑재, 상웨재' 등으로 실현된다. '매옹이, 매옹, 맨중, 멩중, 사랑' 등은 매미의 울음소리를 딴 것이고, '상웨'는 매미 색깔이 노르스름하면서 붉은색을 띠는 데서 붙인 것이다. '심방'도 '무당'의 제주방언으로, 심방들이 곶을 할 때 각종 색깔의 물색을 두르게 되면 울긋불긋하게 되는데, 그 모습과 같다는 데서 붙인 것이다. '유지매미'의 설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유지매미(油脂-)  <동> 매릿과의 곤충. 몸의 길이는 3.1cm 정도이며, 검은색이다. 날개는 불투명하고 어두운 갈색이며 앞날개에는 구름 모양의 짙고 얇은 무늬가 있다. 한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누기름매미. (*Graptopsaltria nigrofuscata*) 『표준국어대사전』 (1999, 두산동아)

유지매미(*Graptopsaltria nigrofuscata* (MOTSCHULSKY, 1866))

유지매미속에는 유지매미를 비롯해 일본의 奄美大島, 沖繩島 등에 서식하는 *G. bimaculata* KATO와 중국 四川省에 서식하는 *G. tianta* KARSCH 등 3종이 알려져 있다. 유지매미는 ICHIKAWA(1906)에 의해 한국 최초로 기록되었다. MORI(1931)는 '기름매암이'라고 한국명을 붙였는데, 조복성(1937)은 '기름매미의 울음소리는 기름 끓는 소리와 비슷하다'며 이름의 유래를 밝힌 바 있다. 조복성(1946)에 의해 '유지매미'란 이름으로 바뀌었으나, 북한의 문헌에서는 아직도 '기름매미'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형태 : 앞뒤 날개는 불투명하여 갈색 바탕에 검정 무늬가 있어 기름종이[油紙]를 연상케 하기도 한다. 날개 맥은 연두색을 띠고 있다. 윗면 몸통의 바탕은 대체로 검정색이나, 앞가슴 등 안쪽에는 갈색 무늬가, 가운데가슴 등의 뒷 가장자리와 배 부분에는 흰 무늬가 있다. 아랫면은 연한 갈색 바탕에 흰 가루가 덮여 있다. 몸길이는 암수 공히 36mm 내외이고, 날개 끝까지의 길이는 55mm 내외이다.

생태 및 울음소리 : 『한국의 매미』(1995) 및 "A List of Cicadidae(Homoptera) in Korea"(1999) 참조.

분포 : 유지매미의 최초 기록지는 일본이며,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에 분포한다. <이영준, 한국의 매미 홈페이지>

유지매미의 제주방언 지도를 그려보면, 제주시 오등동과 애월읍 장전리, 그리고 안덕면 감산리 등에서는 '매옹재열' 또는 '매옹이재열'로 실현되고, 한림읍 금악리와 한경면 조수리, 서귀포시 색달동 등에서는 '멘중재열' 또는 '멩중재열'로 실현된다. 서귀포시 호근동에서는 '심방재열'로 실현되고, 남원읍 수망리에서는 '사랑재', 표선면 가시리에서는 '상웨재'로 실현된다.(<제주방언의 언어지도:유지매미>참고.)

## 6) 애매미의 언어지도

표준어 '애매미'의 제주방언형은 '고삭재열·고스락재·고삭재·극삭재열·고시약자리·고시약재, 구제기재열, 송곳새기' 등으로 실현된다. '고삭·고시약·고스락·극삭' 등과 '구제기' 또는 '구제기야쓰', '송곳' 등은 모두 매미의 울음소리에 빗대어 부른 것이다. '애매미'의 설명은 보면 다음과 같다.

애매미(애매미) 매미과의 곤충. 몸의 길이는 3cm 정도이며, 어두운 녹색이고 검은 무늬가 있다. 몸의 아랫면은 대체로 연한 갈색이고 날개는 투명한데 황금색의 가는 털이 많다. 한국, 일본, 대만,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습기생매미. (Meimuna opalifera)

애매미(Meimuna opalifera (WALKER, 1850))

애매미속은 동부 아시아에서 동양구에 걸쳐 분포하고, 24종이 알려져 있다. 한국에는 애매미와 쓰름매미의 2종이 분포한다. 매미아과 중에서는 몸집이 작은 편에 속하여 조복성(1946)에 의해 '애매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으며, 조복성(1937)이 '기생(蛟生)뱀미'라고 이름 붙인 것이 최초의 한국명이다. 북한에서는 '애기매미' 또는 '굴쩌기'라는 이름을 사용한다.

형태 : 몸길이는 수컷이 30mm 내외, 암컷이 산란관 포함 31mm 내외, 산란관 제외 26mm 내외이다. 날개 끝까지의 길이는 암수 공히 46mm 내외이다. 몸체 윗면에는 검정 바탕에 여러 모양의 녹색 무늬가 덮여 있다. 가운데가슴 등의 세로 무늬는 쓰름매미보다 가늘고, 신선한 개체는 등에 녹색 가루가 덮여 있고, 윗면의 배는 은빛 가루로 덮여 있다. 쓰름매미에 비해 이마가 전방으로 뚜렷이 돌출하였다. 아랫면의 바탕색은 검정이며 배판에 누르스름한 색이 섞여 있는 개체도 있다. 배판 끝 부분의 양편은 오

목하여 배관은 전체적으로 창과 같이 예리한 세모꼴을 이루고, 배 길이의 가운데쯤에 달해 있다. 암컷의 산란관은 몸 밖으로 길게 나와 있다.

생태 및 울음소리 : 『한국의 매미』(1995) 및 “A List of Cicadidae(Hornoptera) in Korea”(199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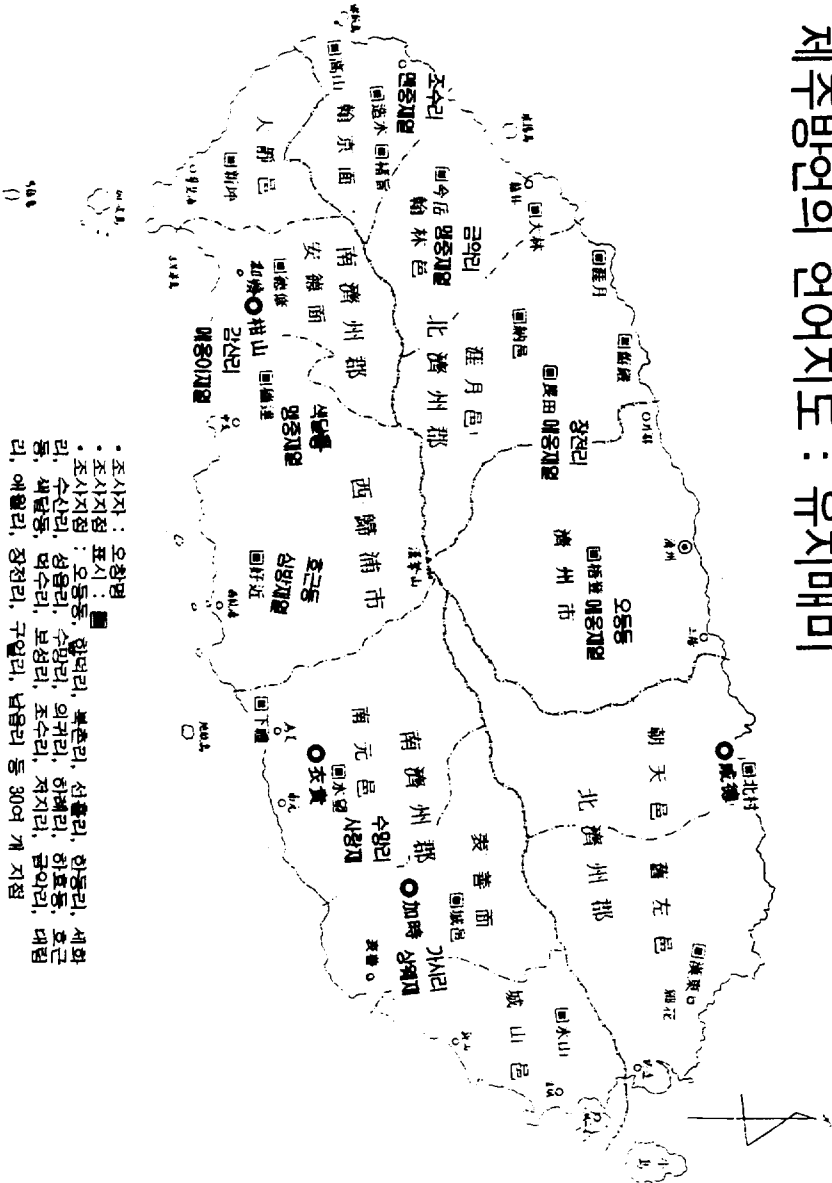
분포 : 애매미의 최초 기록지는 한국이며, 중국, 일본, 대만에 분포한다. <이영준, 한국의 매미 홈페이지>

‘애매미’의 제주방언 지도를 그려보면, 안덕면 덕수리와 감산리, 대정읍 보성리, 그리고 지금은 서귀포시에 속하지만 옛 중문면에 속했던 색달리 등에서 ‘구제기재열’ 또는 ‘구제기야쓰’로 실현되고, 한경면 고수리와 한림읍 금악리 등지에서는 ‘고죽재열’ 또는 ‘고작재열’로 실현된다. 서귀포시 호근동에서는 ‘극삭재열’로 실현되고, 하효동에서는 특이하게 ‘송곳새기’로 실현된다. 구좌읍 세화리와 남원읍 과 표선면 등지에서는 ‘고시약재, 고삭재·꼬삭재’ 등으로 실현되고, 성산읍에서는 ‘고시약자리, 고삭재, 고스락재’ 등으로 실현된다.(〈제주방언의 언어지도:애매미〉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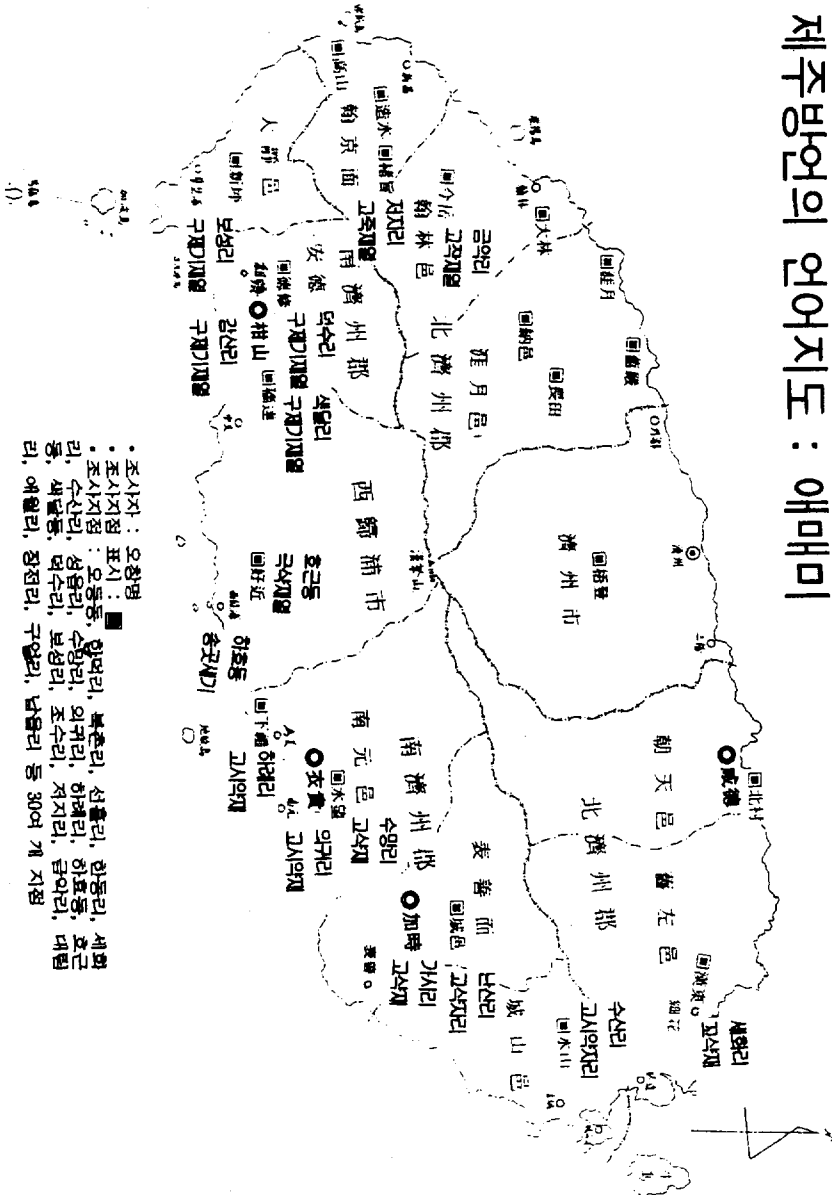
## 7) 매미류의 언어지도

매미류에 대한 제주방언형을 조사하고 방언 지도를 그려보았더니, 적게는 1종류에서 많게는 4종류까지 확인되었다. 이것은 매미에 대해서 연구하는 자연과학자들이 보고한 종류와는 다른 것이다. 특히 매미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매미의 방언형도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방언형도 다양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애월읍 애월리와 구엄리 등에서는 매미의 종류에 대하여 구별하는 방언형이 나타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일컫는 ‘재열’ 또는 ‘재월’만 실현되었다. 조천읍 함덕리와 선홀리, 구좌읍 한동리와 덕천리, 한림읍 대림리, 애월읍 남읍리, 대정읍 고산리 등지에서는 2종류의 방언형만 실현되었고, 제주시 오등동과 애월읍 장전리, 구좌읍 세화리, 성산읍 수산리, 남원읍 의귀리와 하례리, 대정읍 보성리, 한림읍 조수리 등지에서는 3종류의 방언형이 실현되었다. 그러나 한림읍 금악리와 한경면 조수리, 안덕면 감산리와 서귀포시 색달동, 호근동, 그리고 남원읍 수망리와 표선면 가시리 등지에서는 4종류의 방언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크기에 따라서 구별한 ‘뫼재열’과 ‘왕재열’ 또는 ‘죽재열’과 ‘왕재열’,

# 제주방언의 언어지도 : 유지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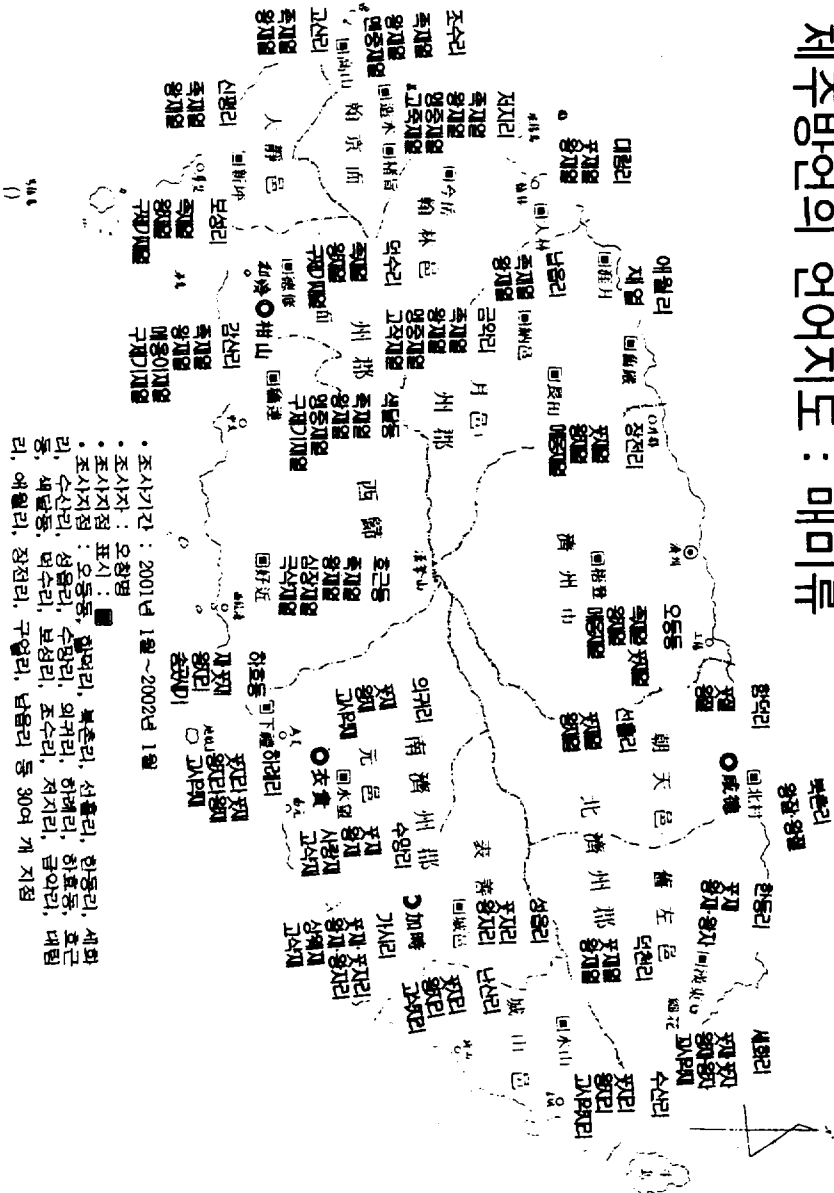


# 제주방언의 언어지도 : 애매미





# 제주방언의 언어지도 : 매미류



그리고 ‘뫓재’와 ‘왕재’ 등은 제주 전역에서 거의 확인할 수 있었으나, 울음소리에 따라 구별하는 ‘멘중재열, 멩중재열, 메옹이재열’과 ‘구제기재열, 극삭재열, 고시약재’, 그리고 색깔에 따라 구별하는 ‘심방재열’과 ‘상웨재’ 등은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방언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제주방언의 언어지도:매미류) 참고.)

### 3. 마무리

지금까지 ‘매미’와 각종 ‘매미류’에 대응하는 제주방언형을 조사하여 채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제주도 방언지도를 그려보았다. 간단히 요약하고 글을 맺겠다.

‘매미’의 방언형은 ‘재열’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지역에 따라 ‘재·자, 자리, 켈’ 등으로 실현됨을 알 수 있었다. ‘재열’은 비교적 전역에 걸쳐 확인할 수 있고, ‘재·자’는 구좌읍 해안가와 남원읍, 표선면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자리’는 성산읍 지역과 남원읍 지역에서 주로 실현됨을 보았다.

‘털매미’의 제주방언형은 ‘족재열, 뫓재열, 뫓재·뫓자’ 등으로 실현되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를 포함한 서쪽 지역에서는 ‘족재열’이 우세하고, ‘뫓재열’을 지역에 따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천읍 선흘리와 구좌읍 덕천리에서는 ‘뫓재열’로 실현되었으나, 조천읍 함덕리와 구좌읍 세화리 등지에서는 ‘뫓켈’ 또는 ‘뫓재’로 실현되었다. 성산읍과 표선면 등지에서는 ‘뫓자리’가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뫓재’도 지역에 따라 확인할 수 있었다. 남원읍 지역에서는 ‘뫓재’가 우세했으나, 지역에 따라 ‘뫓자리’도 실현되었다.

‘말매미’의 제주방언형은 ‘왕재열, 왕자리, 왕켈, 왕재·왕자’ 등으로 실현되었다. ‘왕재열’이 가장 우세하게 실현되었는데, 남제주군 동부지역에서는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조천읍 조천리와 함덕리에서는 ‘왕켈’ 또는 ‘왕잘’, 구좌읍 한동리와 세화리, 남원읍 수망리와 의귀리 등지에서는 ‘왕재’, 성산읍 수산리와 가시리, 남원읍 하례리, 서귀포시 하효동 등지에서는 ‘왕자리’로 실현되었다.

‘유지매미’의 방언형은 ‘메옹재열, 메옹이재열, 멘중재열, 멩중재열, 심방재열, 사랑재, 상웨재’ 등으로 실현되었다. ‘메옹재열, 메옹이재열’은 제주시 오등동과 애월읍 장전리, 안덕면 감산리 등에서 실현되었고, ‘멘중재열, 멩중재열’은 한경면

조수리와 한림읍 금악리 지역에서 실현되었다. '심방재열'은 서귀포시 호근동 지역에서, '사랑재'는 남원읍 수망리에서, '상웨재'는 표선면 가시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이한 것은 '심방재열', '사랑재', '상웨재' 등은 위 지역 이외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애매미'에 대응하는 방언형은 '구제기재열, 고작재열, 극삭재열, 고시약재, 고삭자리, 송곳새기' 등으로 실현되었다. '구제기재열'은 안덕면과 대정읍, 그리고 서귀포시의 옛 중문면 지역 등에서 실현되었고, '고작재열, 고죽재열'은 한림읍과 한경면 지역에서 실현되었다. '극삭재열'은 서귀포시의 옛 서귀읍 지역에서 실현되었다. 그러나 하효동에서는 특이하게 '송곳새기'로 실현되었다. '고시약자리, 고삭자리'는 성산읍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구좌읍 세화리와 표선면과 남원읍 지역에서는 '고시약재, 고삭재' 등으로 실현되었다.

### 〈참고문헌〉

- 석주명(1947), 『濟州島方言集』, 서울신문사편집국.  
석주명(1971), 『濟州島資料集』(濟州島叢書 ⑥), 보진재.  
석주명(1968), 『濟州島隨筆』(濟州島叢書 ④), 보진재.  
강영봉(1993), “제주도방언의 동물 이름 연구-어휘론을 중심으로”, 경기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교부(1979), 『한국동식물도감』 제23권 동물편(곤충류Ⅶ).  
박용후(1961, 1988), 『제주방언연구(자료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성낙수(1992), 『제주도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도서출판 계명문화사.  
이영준(1995), 『한국의 매미』, 도서출판 요나.  
이창언(1979), 『한국동식물도감 제23권:동물편』, 문교부.  
정승철(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국어학회.  
현평효(1962),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 정연사.  
Cho, P. S.(1946), A re-examination of Korean Cicadidae. Bull. Zool. Sec. natn. Sci. Mus., Seoul, 1: 17-24. (In Korean.)  
Cho, P. S.(1971), Hemiptera. Illust. Flora & Fauna Korea, 12 (Insecta), IV: 103-106, 84 pls.(In Korean.)  
Lee, C. E.(1979), Series 1. Auchenorrhyncha Dumeril, 1806. Illust. Flora & Fauna

- Korea, 23 (Insecta), VII: 1-1070, XIV + 79 pls. (In Korean with English summary.)
- Lee, Y. J.(1998), Habitat and habits of *Cicadetta montana* (Homoptera, Cicadidae) in Korea. *Cicada*, Tokyo, 13: 59-61.
- Lee, Y. J.(1999), A list of Cicadidae (Homoptera) in Korea. *Cicada*, Tokyo, 15: 1-16.